

| | |
|--------------------------------|--|
| J D I OPINION | <p>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p> <p>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p> <p>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원합니다.</p> |
|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 향 진 | |

제주발전연구원 : 690-012 제주시 청사 2로 8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2~3층
 전화 XXXXX , 팩스 XXXXX e-mail : XXXXXXXXXXXX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

※ 본 자료는 최근 고용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청년들이 취업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제주지역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 문제 제기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음.
-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촉발시키면서 수출감소, 공장의 폐업, 기업의 구조조정 및 투자부진 등이 발생하여 전체 산업부문에서 고용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청년층의 구직난은 더욱 악화될 양상임.
-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둔화와 일자리 창출 미흡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고용의 질 변화, 학력간·직종간 수급 불일치(Miss matching) 등 구조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한국은행, 2009).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청년층 고용사정의 악화와 실업 급증은 미취업 청년 개인의 사회생활 부적응, 세대 및 사회통합의 부조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중앙 및 지방) 등의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음.

-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지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지방의 청년실업 증가세를 보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15~29세의 지방 취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해 18만8,000명 감소했고, 30대에서도 7만9,000명 줄었음(한국은행, 2009).
- 제주지역의 경우 2008년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4.2%(전체 실업자 6천명 가운데 청년 실업자 2천명으로 전체의 33.3% 차지)로 전국 평균 7.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KOSIS, 2008).
- 그러나 제주지역의 25~29세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40.7%를 차지하여 전국의 청년층 경우의 20.5%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어서 제주의 청년층은 취업포기 혹은 장기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체감 실업은 실제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성(1차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의 편중화), 국내 경기의 심각한 침체, 자영업 부문의 경기둔화 등은 산업현장에서 청년층 노동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져 취업준비생, 임시·일용근로자, 청년 인턴,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글은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한 제주의 청년층 실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II. 청년실업의 일반적 특성과 현황

1. 청년실업의 원인

- 지난 몇 년 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지역과 산업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실업 발생의 원인은 크게 노동수요적 측면, 노동공급적 측면 그리고 고용지원 인프라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권한용 외. 2005; 노동부, 2008; 대구지방노동

청, 2008; 오병기, 이은아 외. 2005; 2008; 제주특별자치도, 2007; 최영섭, 2003).

가. 노동수요적 측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경제 침체로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의 결과로 청년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게 됨. 즉,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표 1. 참고).

<표 1> 청년층 선호 일자리수의 변동 추이 (단위: 만명)

| 구 분 | 1995 | 1998 | 2000 | 2002 | 2004 | 2006 |
|---------------------|-------|-------|-------|-------|-------|-------|
| 대 기 업 ¹⁾ | 251.1 | 204.1 | 163.7 | 178.4 | 187.0 | 191.7 |
| 공 무 원 | 87.1 | 84.4 | 83.7 | 86.9 | 91.9 | 90.5 |
| 금 융 업 | 71.1 | 66.3 | 61.4 | 63.3 | 58.3 | 62.0 |

자료 : 행정안전부 「2007 행정자치통계연보」, 통계청 「사업체 기초조사」

주 :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준. 공장, 지사(지점, 영업소 등) 등 사업장 기준으로 분류

-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는 줄고, 대신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가 늘어 청년들의 취업 욕구에 맞는 일자리는 감소함.
 - 2000년 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사업·사회복지·개인서비스업 등 비정규직 업종에 크게 집중되었음.
 - 2008년 3월 현재 업종별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사업지원 영역에 82.5%, 사회복지 46.1%, 기타개인서비스 부문에 36.6%를 차지하고 있음.
- 기업들이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을 가진 경력직 채용을 선호함으로써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격감하였음(표 2. 참고). 특히 최근에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 속에서 기업의 신규채용은 감소할 것임. 따라서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임.

〈표 2〉 기업규모별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 및 경력자 채용 추이 (구성비, %)

| 구분 | | 2005 | 2006 | 2007 |
|-----|------|------|------|------|
| 신입직 | 대기업 | 77.8 | 73.9 | 61.8 |
| | 중소기업 | 62.6 | 68.7 | 58.2 |
| | 전체기업 | 71.6 | 72.1 | 63.5 |
| 경력직 | 대기업 | 22.2 | 26.1 | 38.2 |
| | 중소기업 | 37.4 | 31.3 | 41.8 |
| | 전체기업 | 28.4 | 27.9 | 36.5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신규인력채용 동태 및 전망조사」 각 년도.

- 기업들이 요구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용요건과 취업 희망 청년층의 취업욕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즉, 고학력 대졸 취업희망자는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및 고용보장의 일자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함.
-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인력수급의 불일치(Miss matching) 현상이 일어나 청년층 인력 수요의 편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만성적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대기업은 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임(표 3. 참고).
 - 2008년 6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인력부족율은 1.3%이고, 10~29인 기업은 3.4%, 그리고 5~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4.5%에 달하고 있음.
 - 대졸 취업 희망자의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배분 활용이 미흡하고, 특히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표 3〉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¹ 비교 (천명, %)

| 규 모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
| 고용규모 ² | 1,384 | 1,968 | 1,731 | 1,150 | 1,535 |
| (비중, %) | (17.8) | (25.3) | (22.3) | (14.8) | (19.8) |
| 인력부족률(%) | 4.3 | 3.4 | 2.6 | 2.4 | 1.3 |

자료 : 노동부, 「2008년도 인력수요동향조사」 (2008.6)

주 1 :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2 : 인력수요동향조사 근로자수 기준

-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고 가족부양에 따른 책임이 적어 자발적 실업이 많고, 기업입장에서도 불황 시기에 기존의 인력 감축보다는 신규채용을 중지하는 것이 수월함.

- 산업구조에 있어서 기술, 노동, 자본이동의 양적·질적 변화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은 결국 국내 고용시장의 위축과 축소를 가져 왔음.

나. 노동공급적 측면

- 고학력 대졸 청년층의 급속한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에 맞지 않은 청년층 인력의 과잉공급 문제가 고학력 청년 실업을 초래하고 있음.
 - 청년층 생산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과 대학졸업자는 더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90년도 33.2%에서 '07년도에 82.8%로 증가
 - 대학졸업자는 '90년도 25.9만명에서 '07년도에 52.6만명으로 증가
- 고학력 대졸 청년층의 대다수가 고용안정, 고임금 및 정규직을 제공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전문직 직종 취업을 희망하고, 반면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
 - 노동부(2008)에 따르면,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희망하는 직종으로 공무원이 3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기업체 16.6%, 고시 및 전문직 14.0%, 언론·공기업 7.0%, 그리고 교사 7.0%로 나타남.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자격, 직무능력, 경력 등의 욕구에 맞는 인력 수요에 대학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학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대졸 청년층의 신규인력을 기피하여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다. 고용지원 인프라 측면

- 청년 실업은 청년구직자와 구인자(기업체)간의 네트워크 연계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증가함. 따라서 구인·구직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성 있음.

- 학교에서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여 대졸 취업 희망자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청년실업 해소 지원책과 학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체의 산업수요 간에 네트워크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청년층 고용촉진에 미흡함.
- 저학력·저소득층 청년,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만성실업자층이 증가하고 있음.

2. 청년실업의 현황

-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15~29세의 청년 실업자는 35만 6,000명이고, 또한 20대 실업율이 2008년 9월에 6.0%, 10월 6.7%, 11월 6.6%, 12월 말 7.0%, 그리고 2009년 1월에 7.7%로 급격히 상승함(그림 1. 참고).

<그림 1> 20대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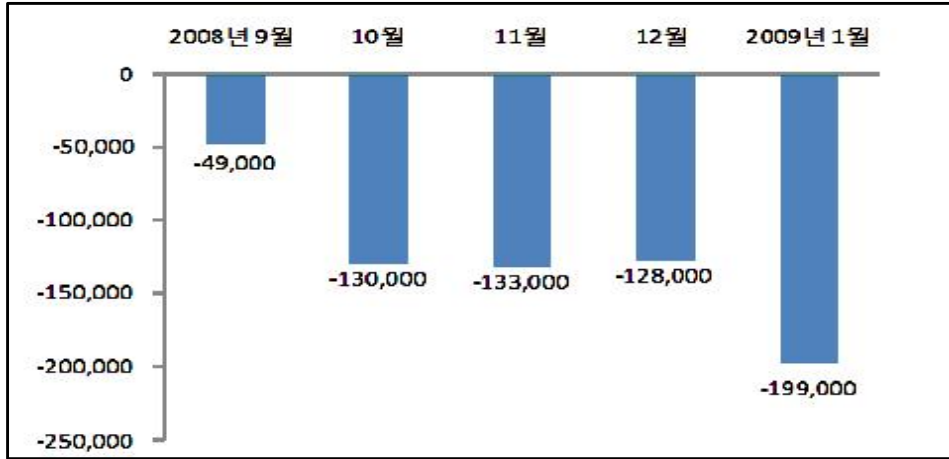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08년 9월에 4만9000명 감소하였고, 10월 13만명 감소, 11월 13만3000명 감소, 12월 말 12만800명 감소, 그리고 2009년 1

월에 19만9000명 감소하였음(그림 2. 참고).

<그림 2> 20대 취업자수 증감 (단위: 전년동월대비 명)



자료: 통계청, KOSIS

-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11월에 62.9%에서 2009년 1월에 61.8%로 1.1% 포인트 감소하여 1988년 2월에 61.3%를 나타낸 이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청년 고용 및 실업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3. 청년고용의 특성

가. 청년고용을 추세

- 노동부(2008)에 따르면, '07년 청년고용률은 42.6%로 OECD 평균 54.4%에 비해서도 낮으며 '04년(45.1%) 이후 3년 연속 하락하였음(표 4. 참고).
 - 청년고용률의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임.
 - 고용률의 하락속에서도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00년 이후 상승하여 '04년부터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함.
 - 24~29세, 서비스업, 전문직에서 여성 청년층이 주로 증가

〈표 4〉 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청년 | 43.4 | 44.0 | 45.1 | 44.4 | 45.1 | 44.9 | 43.4 | 42.6 |
| 남성 | 46.1 | 45.7 | 46.2 | 45.1 | 45.1 | 44.1 | 42.4 | 41.5 |
| 여성 | 40.9 | 42.4 | 44.0 | 43.8 | 45.2 | 45.6 | 44.3 | 43.7 |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나. 청년고용구조

- 청년층 취업자는 중장년층에 비하여 감소하고 또한 상용직과 임시직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일용직에서는 증가하였음. 청년층(15~29세)의 종사자 지위별 고용증감은 중장년층(30세 이상)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표 5. 참고).

〈표 5〉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 증감 비교 (단위: 천명)

| 구분 | 청년층(15-29세) | | | 중장년층(30세이상) | | |
|-----|-------------|--------|-----|-------------|--------|-----|
| | 07.2/4 | 08.2/4 | 증감 | 07.2/4 | 08.2/4 | 증감 |
| 상용직 | 2,193 | 2,166 | -27 | 6,340 | 6,815 | 475 |
| 임시직 | 1,339 | 1,263 | -76 | 3,898 | 3,878 | -20 |
| 일용직 | 346 | 366 | 20 | 1,945 | 1,862 | -83 |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다. 취업애로층 증가

- 최근 청년(15~29세) 실업률은 7~8% 수준으로서, 통계 지표상으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 청년 실업률이 '04년에 8.3%, '05년 8.0%, '06년 7.9%, '07년 7.2% '08년 2/4분기)에 7.4%로 나타나 감소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준비자·유휴인력 등 취업애로층은 1백만명을 상회하여 체감 실업은 높음(표 6. 참고).
 -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고용 부진

속에서도 실업자수는 감소

〈표 6〉 청년 취업 애로총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상반기 |
|----------------|-----|-----|-------|-------|-----|------------|
| 실업자(A) | 401 | 412 | 387 | 364 | 328 | 328 |
| 구직단념자(B) | 31 | 30 | 32 | 33 | 30 | 32 |
| 취업준비자(C) | 268 | 297 | 351 | 413 | 417 | 477 |
| 쉬었음(D) | 225 | 258 | 278 | 258 | 245 | 245 |
| 취업애로총(A+B+C+D) | 906 | 978 | 1,025 | 1,043 | 996 | 1,055 |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라. 대졸 청년 구직 준비자의 증가

- 대졸이상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 상태보다는 취업준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표 7. 참고).
- 대졸 취업준비자는 '08상반기에 31만명으로 44.8%를 차지하여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비중¹ 추이 (구성비,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년 상반기 |
|------|------|------|------|-----------|
| 33.7 | 38.4 | 45.5 | 46.4 | 44.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

주 :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포함)/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청년실업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가 50% 절반을 차지하였음.
- '05년에 실업자중 고졸이하(44.2%)가 대졸자(38.5%)보다 많았으나, '08년 상반기에는 대졸자(50.0%)가 고졸이하(33.5%)보다 증가하였음.

III. 제주지역 청년실업의 일반 현황

1.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성

-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임.
-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68.8%로 1.0%포인트 미미한 증가를 보임.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 구 분 | 15세이상 인구(천명) | 경제활동인 구(천명) | 취업자 (천명) | 실업자 (천명) |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경제활동참 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
| 2000 | 395 | 268 | 261 | 8 | 127 | 67.8 | 3.0 | 66.1 |
| 2001 | 397 | 271 | 264 | 7 | 127 | 68.3 | 2.6 | 66.5 |
| 2002 | 401 | 278 | 271 | 6 | 124 | 69.3 | 2.2 | 67.6 |
| 2003 | 406 | 286 | 281 | 5 | 120 | 70.5 | 1.9 | 69.2 |
| 2004 | 409 | 285 | 278 | 7 | 124 | 69.7 | 2.5 | 68.0 |
| 2005 | 415 | 291 | 284 | 7 | 125 | 70.0 | 2.5 | 68.3 |
| 2006 | 421 | 295 | 289 | 6 | 126 | 70.0 | 2.1 | 68.5 |
| 2007 | 426 | 295 | 289 | 6 | 131 | 69.2 | 2.1 | 67.7 |
| 2008 | 429 | 296 | 290 | 6 | 134 | 68.8 | 1.9 | 67.6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년도.

- 제주지역은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는 42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395천명으로 8.6% 증가하여 계속 소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2000-2008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는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1.0% 포인트 증가함(표 8. 참고)
- 취업자는 지난해 290천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29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도 2008년에 67.6%로 2000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3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8년 말 현재 1.9%인데 전국의 실업률 3.1%에 비하여 낮은 편임.
- 이처럼 제주지역은 제조업 중심(특히 수출)의 산업구조를 가진 타·시도에 비하여 심각한 경기불황의 여파에 아직까지 덜 노출되어 고용률과 실업률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주 청년실업의 특성

가. 제주지역 청년경제활동 변화 추세

- 2007년 현재 제주지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4세 32.1%, 25~29세 82.7%로 나타나 전국 대비(28.1%, 73.1%)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9. 참고).
- 2004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15~24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5~29세 청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표 9〉 전국 및 제주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단위 : %)

| 구 분 | 연 령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 국 | 계 | 62.1 | 62.0 | 61.9 | 61.8 |
| | 15~24세 | 34.8 | 33.3 | 30.2 | 28.1 |
| | 25~29세 | 73.3 | 73.6 | 73.2 | 73.0 |
| | 30~39세 | 74.9 | 74.8 | 75.5 | 75.3 |
| | 40~49세 | 79.1 | 79.1 | 79.5 | 79.9 |
| | 50~59세 | 69.4 | 69.9 | 70.1 | 71.2 |
| | 60세 이상 | 37.3 | 37.4 | 37.9 | 38.6 |
| 제 주 | 계 | 69.7 | 70.0 | 70.0 | 69.2 |
| | 15~24세 | 36.8 | 36.7 | 35.9 | 32.1 |
| | 25~29세 | 76.9 | 80.6 | 81.6 | 82.7 |
| | 30~39세 | 80.0 | 80.3 | 80.7 | 79.8 |
| | 40~49세 | 87.9 | 87.1 | 88.4 | 86.9 |
| | 50~59세 | 80.0 | 80.7 | 76.6 | 78.2 |
| | 60세 이상 | 54.6 | 53.9 | 54.7 | 54.7 |

자료: 통계청 KOSIS. 각 년도

나. 제주 청년실업 현황

- 제주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의 통계 분포를 보면, 실업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표 10. 참고).
 - 지난 9년 동안 청년층 인구 (-17천명), 경제활동인구(-12천명), 취업자 수 (-10천명), 경제활동참가율(-1.2%p), 고용률(-1.0%p) 등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2000년에 6.5%에서 2008년에 4.2%로 2.3%p 감소하였음. 지난 9년 동안 청년 실업률은 감소 → 증가 → 감소를 보여 주고 있음.

〈표 10〉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 현황(15~29세)

| 구 분 | 15세이상 인구(천명) | 경제활동인 구(천명) | 취업자 (천명) | 실업자 (천명) |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 경제활동참 가율(%) | 실업률 (%) | 고용률 (%) |
|------|-----------------|----------------|-------------|-------------|-----------------|----------------|------------|------------|
| 2000 | 121 | 62 | 59 | 4 | 58 | 41.7 | 6.5 | 40.0 |
| 2001 | 115 | 59 | 55 | 3 | 58 | 41.6 | 5.1 | 38.5 |
| 2002 | 112 | 57 | 54 | 3 | 54 | 40.4 | 5.3 | 38.5 |
| 2003 | 109 | 59 | 56 | 3 | 50 | 43.7 | 4.9 | 41.5 |
| 2004 | 105 | 54 | 51 | 4 | 51 | 41.3 | 6.6 | 38.5 |
| 2005 | 103 | 55 | 51 | 3 | 48 | 43.1 | 6.1 | 40.0 |
| 2006 | 102 | 55 | 51 | 3 | 49 | 43.4 | 5.5 | 41.0 |
| 2007 | 104 | 53 | 50 | 3 | 51 | 41.5 | 5.3 | 39.0 |
| 2008 | 104 | 50 | 49 | 2 | 52 | 40.5 | 4.2 | 39.0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년도.

- 2008년 현재 전국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2%로 나타났으나 제주 청년의 경우는 4.2%를 차지하여 전국과 비교할 때 3.0%p 정도 낮게 나타났음(표 11. 참고).
- 제주도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구직포기, 시간제, 무급가족노동 등으로 인한 한시적 고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볼 수만은 없음.

〈표 11〉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실업을 변화 추세 (단위 : %)

| 구 분 | 연 령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 국 | 계 | 3.7 | 3.7 | 3.5 | 3.2 | 3.2 |
| | 15~29세 | 8.3 | 8 | 7.9 | 7.2 | 7.2 |
| | 30~59세 | 2.6 | 2.8 | 2.5 | 2.5 | 2.4 |
| | 60세이상 | 1.2 | 1.3 | 1.4 | 1.4 | 1.2 |
| 제 주 | 계 | 2.5 | 2.5 | 2.1 | 2.1 | 1.9 |
| | 15~29세 | 6.6 | 6.1 | 5.5 | 5.3 | 4.2 |
| | 30~59세 | 1.7 | 1.9 | 1.6 | 1.6 | 1.7 |
| | 60세이상 | 0.2 | 0.5 | 0.2 | 0.9 | 0.2 |

자료: 통계청 KOSIS. 각 년도

- 2004년 이후 전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의 청년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는 세계경제 위기의 확산과 국내 경기의 장기적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타시도의 경기불황은 도내 청년층 취업 기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청년층 취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임. 대신에 미취업 청년층이 도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것임.
- 제주지역의 중장년층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의 91.6%에 비하여 아주 낮은 80.6%를 차지하고 있음(표 12. 참고).
- 특히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전국의 25~29세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20.5%인데 반하여 제주의 경우는 40.7%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제주지역의 청년층은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가 전국평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제주지역의 청년층은 취업준비생,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구직포기자로 남아 있어서 이들 집단은 청년실업자 층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 실업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2> 전국 및 제주지역의 연령별 고용형태 비교 (단위 : 천 명, %)

| 구분 | 연령 | 임금근로자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 계 | 시간제 | 전일제 | 계 | 자영자 | 고용주 | 무급 가족종사자 |
| 전국 | 계 | 15,727.9 (66.6) | 1,157.3 (7.4) | 14,570.6 (92.6) | 7,884.0 (33.4) | 4,990.9 (63.3) | 1,013.1 (12.9) | 1,880.0 (23.8) |
| | 15~19 | 318.4 (94.8) | 130.0 (40.8) | 188.4 (59.2) | 17.3 (5.2) | 10.0 (57.8) | - | 7.3 (42.2) |
| | 20~24 | 1350.0 (94.9) | 121.1 (9.0) | 1228.9 (91.0) | 73.1 (5.1) | 44.2 (60.5) | 6.5 (8.9) | 22.4 (30.6) |
| | 25~29 | 2557.4 (91.6) | 103.1 (4.0) | 2454.3 (96.0) | 235.7 (8.4) | 155.4 (65.9) | 31.9 (13.5) | 48.4 (20.5) |
| | 30~34 | 2407.9 (81.7) | 100.7 (4.2) | 2307.2 (95.8) | 538.0 (18.3) | 350.2 (65.1) | 81.5 (15.1) | 106.3 (19.8) |
| | 35~39 | 2400.9 (73.6) | 148.1 (6.2) | 2252.8 (93.8) | 862.8 (26.4) | 532.2 (61.7) | 160.0 (18.5) | 170.7 (19.8) |
| | 40~44 | 2121.6 (65.1) | 133.5 (6.3) | 1988.1 (93.7) | 1137.4 (34.9) | 664.1 (58.4) | 218.3 (19.2) | 255.1 (22.4) |
| | 45~49 | 1793.1 (56.7) | 115.0 (6.4) | 1678.1 (93.6) | 1370.9 (43.3) | 830.3 (60.6) | 220.2 (16.1) | 320.4 (23.4) |
| | 50~54 | 1239.0 (52.9) | 99.5 (8.0) | 1139.5 (92.0) | 1105.2 (47.1) | 694.2 (62.8) | 157.7 (14.3) | 253.3 (22.9) |
| | 55~59 | 775.6 (50.4) | 71.1 (9.2) | 704.5 (90.8) | 764.0 (49.6) | 504.9 (66.1) | 66.5 (8.7) | 192.7 (25.2) |
| | 60~64 | 427.6 (41.4) | 47.2 (11.0) | 380.4 (89.0) | 606.2 (58.6) | 392.5 (64.7) | 39.1 (6.5) | 174.7 (28.8) |
| | 65세이상 | 336.5 (22.3) | 88.1 (26.2) | 248.4 (73.8) | 1173.2 (77.7) | 813.0 (69.3) | 31.6 (2.7) | 328.7 (28.0) |
| 제주 | 계 | 160.8 (54.5) | 10.5 (6.5) | 150.2 (93.4) | 134.5 (45.5) | 78.8 (58.6) | 14.4 (10.7) | 41.3 (30.7) |
| | 15~19 | 3.1 (96.9) | 1.4 (45.2) | 1.7 (54.8) | 0.2 (6.3) | - | - | 0.2 (100) |
| | 20~24 | 15.9 (96.4) | 0.6 (3.8) | 15.3 (96.2) | 0.6 (3.6) | 0.4 (66.7) | - | 0.2 (33.3) |
| | 25~29 | 24.5 (80.6) | 0.3 (1.2) | 24.2 (98.8) | 5.9 (19.4) | 2.8 (47.5) | 0.7 (11.9) | 2.4 (40.7) |
| | 30~34 | 28.5 (80.1) | 1.5 (5.3) | 26.9 (94.4) | 7.1 (19.9) | 3.8 (53.5) | 1.1 (15.5) | 2.3 (32.4) |
| | 35~39 | 25.0 (61.3) | 1.4 (5.6) | 23.6 (94.4) | 15.8 (38.7) | 9.4 (59.5) | 3.5 (22.2) | 2.9 (18.4) |
| | 40~44 | 20.0 (51.3) | 0.7 (3.5) | 19.3 (96.5) | 19.1 (49.0) | 11.3 (59.2) | 2.7 (14.1) | 5.1 (26.7) |
| | 45~49 | 19.2 (52.9) | 0.9 (4.7) | 18.4 (95.8) | 17.1 (47.1) | 9.8 (57.3) | 2.4 (14.0) | 4.9 (28.7) |
| | 50~54 | 12.1 (42.6) | 0.9 (7.4) | 11.1 (91.7) | 16.4 (57.7) | 8.3 (50.6) | 2.2 (13.4) | 5.8 (35.4) |
| | 55~59 | 5.8 (29.6) | 0.8 (13.8) | 5.0 (86.2) | 13.8 (70.4) | 7.5 (54.3) | 0.7 (5.1) | 5.6 (40.6) |
| 60~64 | 3.0 (17.8) | 0.6 (20.0) | 2.4 (80.0) | 13.9 (82.2) | 9.0 (64.7) | 0.8 (5.8) | 4.1 (29.5) | |
| 65세이상 | 3.7 (13.0) | 1.3 (35.1) | 2.4 (64.9) | 24.8 (87.0) | 16.5 (66.5) | 0.3 (1.2) | 7.9 (31.9) | |

자료: 통계청 KOSIS.

다.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 현황

-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률은 2007년 76.3%에서 2008년에는 79.0%로 상승하여 2.7%p 증가하였음(표 13. 참고).
- 그러나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2007년 68.7%에서 2008년에는 61.2%로 무려 7.5%p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이 2007년에 4.7%에서 11.3%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대학생 취업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고용지위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 관련 현황 (단위: 명, %)

| 취업현황별 | | 졸업자수 | 제외자 | 대상자 | 취업자 | 미취업자 | 취업률 |
|-------|--------------------|-----------------|----------------|---------------|--------------------|---------------------|--------------|
| 2007년 | | 5,996 | 336 | 5,660 | 4,319 | 1,232 | 76.3 |
| 2008년 | | 5,884 | 380 | 5,504 | 4,346 | 1,148 | 79.0 |
| 고용형태별 | | 정규직 | 정규직대기 발령 | 비정규직 임시직 |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 비정규직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 |
| 2007년 | 합계 4,319(100.0) | 2,965 (68.7) | 2,965 (5.8) | 249 (17.3) | 205 (4.7) | 58 (1.3) | 93 (2.2) |
| 2008년 | 4,346(100.0) | 2,661 (61.2) | 337 (7.8) | 681 (15.7) | 493 (11.3) | 66 (1.5) | 108 (2.5) |
| 제외자별 |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외국인 유학생 | 군 입대자 | 취업불 가능자 |
| 2007년 | 합계 336(100.0) | 9 (2.7) | 124 (36.9) | 125 (37.2) | 17 (5.1) | 56 (16.7) | 5 (1.4) |
| 2008년 | 380(100.0) | 24 (6.3) | 133 (35.0) | 120 (31.6) | 14 (3.7) | 86 (22.6) | 3 (0.8) |
| 미취업자별 | | 국가고시 | 진학준비 | 취업준비 | 전업주부 | 기타 | |
| 2007년 | 합계 1,232(100.0) | 413 (33.5) | 40 (3.2) | 668 (54.2) | 28 (2.3) | 83 (6.8) | |
| 2008년 | 1,148(100.0) | 345 (30.1) | 19 (1.7) | 602 (52.4) | 47 (4.1) | 135 (11.7) |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8.

주: 조사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임.

- 졸업자 :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2월 졸업
- 제외자 : 전문대,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국내·외 포함
- 대상자 : 졸업자 가운데 제외자를 뺀 나머지 해당자 수

- 지난 2년 동안(2007-2008년) 제주지역의 대졸자 가운데 취업 제외자인 전문대학의 재입학자(3.6%p 증가)와 군입대자(6.1%p 증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능한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하여 기술을 취득하거나 혹은 잠시 취업이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군입대를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7-2008년에 제주지역의 미취업 대학 졸업생 가운데 1/3 정도가 국가고시(공무원 시험 등)를 준비하여 공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기 위한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주지역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졸 취업희망자들은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에라도 일단 취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그렇지 않으면 대졸 취업희망자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취업준비(인턴 및 해외 연수, 회사 입사 등) 혹은 국가고시(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큼. 그러나 미취업 대졸 취업 희망자들이 취업 실패 혹은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직단념자 혹은 무임금가족종사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구직단념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인턴,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 회사 입사 등)의 급증은 결국 청년실업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만성실업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라. 제주지역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제주지역의 청년층 희망 고용형태를 보면 전국에 비하여(4.6%) 비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전일제 근무 66.7%, 시간제 근무 33.3%로 나타나 전국의 각각 76.7%, 18.7%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음(표 14. 참고).
- 그러므로 제주지역 청년층(15~29세)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전국의 경우보다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비율이 거의 2배에 이르러 제주지역 청년층의

고용 지위, 고용의 질, 고용 안정에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15~29세)에서는 학력별 차이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만 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반면에 고졸 학력자는 모두 시간제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청년층 구직자(15~29세)들이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전국에 비하여 시간제 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그 만큼 제주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고려할 때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층에게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가 그 만큼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됨. 특히 고졸 학력자는 아예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학력 수준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임.

<표 14> 청년구직자의 연령별, 학력별 희망 고용형태(2007) (단위: 천 명, %)

| 구 분 | 연령/학력별 구분 | 평소 구직자수 | 임금근로자 | | | 비임금 근로자 |
|---------|-------------|------------|-------|-------|-------|------------|
| | | | 계 | 시간제 | 전일제 | |
| 전 국 | 전체 | 1,249 | 90.1 | 20.0 | 70.1 | 9.9 |
| | 중졸이하 | 248 | 91.9 | 34.7 | 56.9 | 8.1 |
| | 고졸 | 626 | 89.9 | 21.6 | 68.2 | 10.2 |
| | 전문대졸이상 | 375 | 89.3 | 7.7 | 81.9 | 10.7 |
| | 청년층(15~29세) | 459 | 95.2 | 18.7 | 76.7 | 4.6 |
| | 중졸이하 | 25 | 100.0 | 64.0 | 36.0 | 0.0 |
| | 고졸 | 226 | 94.7 | 25.7 | 69.0 | 5.6 |
| 전문대졸 이상 | 208 | 95.2 | 5.8 | 89.9 | 4.3 | |
| 제 주 | 전체 | 9 | 100.0 | 25.0 | 75.0 | 0.0 |
| | 중졸이하 | 2 | 100.0 | 0.0 | 100.0 | 0.0 |
| | 고졸 | 3 | 100.0 | 33.3 | 66.7 | 0.0 |
| | 전문대졸 이상 | 4 | 100.0 | 25.0 | 75.0 | 0.0 |
| | 청년층(15~29세) | 3 | 100.0 | 33.3 | 66.7 | 0.0 |
| | 중졸이하 | 0 | 0.0 | 0.0 | 0.0 | 0.0 |
| | 고졸 | 1 | 100.0 | 100.0 | 0.0 | 0.0 |
| 전문대졸 이상 | 2 | 100.0 | 0.0 | 100.0 | 0.0 | |

자료: 통계청 KOSIS. 2008.

주: 일부 구성비의 합계가 ±100%인 것은 평소구직자 단위의 반올림 때문임.

마.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한계점

□ 고용없는 성장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청년일자리 급격 감소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고용없는 성장과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로 청년 고용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및 고용문제도 국가의 경제침체와 무관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청년고용시장 한계

-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의 청년일 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농업과 관광·서비스산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청년인력이 농업부문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호하지 않고 있고, 제조업 부문은 수요의 절대부족(2007년 기준 전체 산업의 2.6%)으로 취업이 어렵고, 관광·서비스 산업부문도 영세업체(특히 자영업, 도소매업, 여행사 등)의 경기 부진 및 폐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으로 고용의 불안정 증대

- 제주지역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은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 증대를 가져와 고용의 질적 저하를 위협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층에 임시직·시간제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경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Miss matching) 문제

- 제주지역에서 양성되는 청년인력은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와 도내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전공과 일치하여 연계된 일자리 혹은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청년인력의 공급과 수요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고용·인적자원개발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고학력 청년인력의 과잉 공급

사태로 만성적 청년실업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부족

- 제주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턴사업에 따른 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게 현실임.
- 중앙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업자훈련 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만 청년고용촉진 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민간부문에 의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 공공부문에서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 인턴사업이 추진되어 청년층을 위한 임시직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전문계 고교 혹은 전문대 학력 인력들이 많이 취업되고 있으나, 4년제 대졸 학력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보다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국가고시(특히 공무원, 교사 임용시험 등) 혹은 취업 준비(대기업 입사 등)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체 인턴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미취업 고학력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미흡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과 취업과의 연계성 미흡

- 현재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실업자훈련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수강생들의 취업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도내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가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 종합대책 미흡

- 제주지역에는 청년고용, 일자리,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구인·구직 네트워크 체제, DB 구축 등과 같은 청년실업 문제 관련 종합 대책 방안이 미흡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 및 전문계 고교 등이 각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과 대책을 가지고 정책적·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가칭) 「제주지역의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IV.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 정부는 고학력자의 과잉공급, 청년층 일자리 부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인프라 부족 등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여러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민간자율 인턴제 도입, 청년 기업가 육성, 해외 취업 확대, 우량중소기업 발굴 및 추가채용 등 지원 사업
 - 직업체험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 맞춤 인력양성 사업으로 군 전역자 취업캠프 등 직업체험 확대, 마이스터고 육성,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 산업단위 훈련-고용 윈스톱 지원 사업
 -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청년 New Start 프로젝트, 청년층 종합취업 포털 확충, 고학력 여성 커리어 개발, Job World를 통한 직업설계 등 지원 사업
- 정부의 청년고용촉진 대책은 2008년 12월에 종료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까지 유효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일부 개정안 가운데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과 산·학·관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역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이 포함됨.
- 또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학·관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으로 민관 합동 T/F 팀을 작동시켜 나갈 계획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과제

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오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청년실업 해소 혹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각종 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고학력 청년인력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 향상 그리고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인턴사업, 기업체 인턴사업, 그리고 산·학·행 인턴사업(2009년 신규사업)
 - 2009년부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해외 인턴십’ 사업
 - 자활취업촉진 / 직업적응훈련 / 신규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새터민 직업훈련 /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 지원
 - 자활직업훈련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2006년부터 시작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노동부 인증 7개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제주YWCA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급자리,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 일배움터, 사회복지법인 청수아리랑 김치, 유한회사 행복나눔푸드) 지원 사업

나. 향후 청년 고용촉진정책의 방향 및 과제

□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취업 제고

-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체 (혹은 사업체)의 수요 욕구에 맞는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내 대학에서는 현장 수요자 중심형으로 교과과정 재편화 노력

- 전문계 고교, 도내 대학, 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간 네트워크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년 고용·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
 - 21세기 미래 제주를 선도해 나갈 청년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종합 정책 수립 필요
 - 제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가칭) 「제주지역의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 투자·기업유치의 활성화와 청년고용 연계 강화**
 - 외부로부터 투자 및 기업유치 증대
 - 지역내 우량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 외부 투자기업으로부터 고용·인적자원개발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확대**
 - 제주지역의 핵심전략산업(친환경 1차산업,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부문별 고용·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교육, 의료, IT, BT, CT 등)의 청년인력 수급 전략 수립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도내 「지자체-공공기관-민간직업훈련기관-대학-기업체-지역경제단체 등」의 협력 체제 강화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구의 운영**
 -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총괄 조정 기구 필요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촉진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정부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과 연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청년 인턴제, 청년 기업가 육성, 해외취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용 정보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 확보 노력

□ 취약계층의 청년에게 고용지원 강화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총원 지원 강화

- 제주지역의 우량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복지수준 제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 우량 중소기업 홍보 확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 교대제 전환 지원금 제공,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적극 활용

□ 해외 취업 연수 및 취업기반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과 현장실무 체험 증진을 위한 해외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확충
- 도내 대학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제주청년 해외연수 및 취업 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해외 취업 멘토링제 등을 총괄하는 인프라 구축 노력

□ 제주지역의 산·학·연·행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청년고용 지원 활성화

- 청년일자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고용촉진 등의 주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학·연·행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청년들의 취업욕구 및 진로 선택이 고려된 고용지원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도내 대학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춘 인재양성·배분·활용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노력
- 도내 대학은 우수 교수 초빙, 우수 학생 모집, 교과과정의 글로벌화 재편, 연구·교육시설의 확충, 맞춤형 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과감한 투자 및 지원

□ 제주지역의 청년고용·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 청년인력양성·배분·활용,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DB 구축 필요
- 제주 청년층의 다양한 개인별 특성(연령, 학력, 거주지역, 혼인유무, 직업경력, 기술 및 능력수준, 계층, 가족관계, 직업유형, 종사자지위, 임금수준, 평생학습, 취업선호 기업체, 미래취업열망, 실업상태 등)에 따른 DB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필요
-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 이 중심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그리고 제주통계사무소 등의 행정적 지원 필요

□ 제주지역의 청년기업가 육성 지원

- 창업희망 청년이나 혹은 가업을 계승하여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청년 예비기업가 인력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연구기능 확충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분석
- 제주지역의 노동시장 구조 및 변화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적 실천 과제

□ 고학력 청년연수 인턴제와 일자리 연계 강화

- 산·학·행 인턴제의 효과성 증대
- 행정기관 연수인턴제를 점차 기업체 인턴제로 전환
- 기업체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 지원 강화

□ 장기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2003년 이후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듀얼시스템은 실직이 3개월 이상 된 청년실업자 대상으로 직업훈련 제공
- 중앙정부에서 지원·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교육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의 질적 개선

□ (가칭) 「한라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한라산 국립공원·세계자연유산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보존 필요성
- 생태숲 가꾸기 사업이 정부의 녹색성장 및 저탄소 에너지 자원화 연계 필요
- 한라산의 산림 파괴, 훼손, 불법 채취, 입산금지, 산불예방 등의 문제 해결
- 저소득·저학력 청년층에게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장기적 일자리 제공

□ 도외 우량 중소기업 유치단 운영 및 지원

- 도외 IT·BT 분야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단 상시 운영 및 지원
- 도내의 IT·BT 분야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발굴 및 지원

□ 타시·도 우량 중소기업 「제주지역 일자리박람회」 참가 확대 지원

- 매년 개최하는 「제주지역 일자리박람회」에 타시·도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지원 사업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간에 다양한 취업정보 교류와 협력 체제 구축
- 도내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 기관 등의 적극 참여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빈곤아동, 결식아동, 학습부진 아동, 가정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학습·교육·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및 인력지원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및 고학력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청년고용·인력수급 조사 지원 사업

- 제주지역의 청년인적자원 및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제주지역의 청년인력수급 분석과 청년고용·인적자원의 지표개발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 총괄 조정기구 신설 혹은 재편

- 청년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등을 총괄 기획·집행·평가해 나갈 전담부서 신설 혹은 재편화
- 혹은 기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서에 기능 및 역할을 새로 부여하여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 농어촌 지역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을활력·재생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젊은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 지원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사업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창업 희망하는 청년 예비경영인에 대한 실태 조사

□ 청년 고용·인적자원의 정보 DB 구축 사업

- DB 구축을 위한 청년층 고용·인적자원 자료 수집을 위한 지표 개발
-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인적자원에 대한 자료 수집
-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인적자원의 통계 및 DB 구축

참고자료

- 권한용 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 2005.
- 노동부, 「2008년도 인력수요동향조사」 2008.
- _____, 「내부자료」 2008.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오병기, 「청년실업 현황과 취업확대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2008.
- 이은아·이해진, 「경기도 청년실업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2007.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08.
-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3.
- 통계청, 「사업체 기초조사」 2007.
- _____, KOSIS. 각 년도.
- 한국경영자총협회, 「신규인력채용 동태 및 전망조사」 각 년도.
- 한국은행,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 방안.” 「보도참고자료」 2009.
- 행정안전부, 「2007 행정자치통계연보」 2008.